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부부문제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부신념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신념 요인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먼저 부부의 주요생활영역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 5문항씩 총 60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전통적 부부신념'과 '현대적 부부신념'의 2 요인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가 제작되었다. 부부신념 척도를 다른 참여자 집단에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척도와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부부가 모두 응답한 부부 쌍 자료를 대상으로 부부간 신념의 불일치와 부부 불만족 사이의 상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낮으나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요인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의 부부신념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 보다 부부 사이의 신념의 불일치가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문제, 부부신념, 부부신념 불일치, 부부 불만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진숙 /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 02-2128-3064 / Fax : 02-2128-3111 / E-mail : jskim@sdu.ac.kr

갈등이 심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지각과정에서 더 부정적인 편향을 보이며 인지적 왜곡을 더 많이 보인다(Floyd & Markman, 1983; Christensen & Nies, 1980; Jacobson & Moore, 1981). 이러한 지각 과정은 배우자들의 인지도식의 영향을 받는다. Beck(1976)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자극을 선별하고 부호화하며 평가하는 구조로서 인지도식을 정의한 바 있다. 인지도식의 기초 위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Segal(1988)은 인지도식을 과거 반응과 경험들이 조직화된 것이며 지각과 평가로 안내하는 상대적으로 응집력 있고 일관된 지식체(body of knowledge)라고 강조하였다. 인지도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것이 고도로 일반화된 상위수준의 인지이며 변화에 저항하고 개인의 사고와 정서 및 행동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다.

Beck(1988)은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모델을 부부문제에 적용하면서 각 배우자는 자기(self)에 대한 인지도식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인지도식을 부부관계로 가져온다고 말하였다. 인지도식의 특정한 내용이 부부관계에서의 사건에 직면하여 활성화되면 이 활성화된 인지도식의 내용은 부부 사건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사고과정을 안내한다.

O'Leary(1987)는 부부문제의 평가에서 중요한 인지도식 유형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인지도식, 자신에 대한 인지도식, 부부관계에서의 특정 역할에 대한 인지도식 및 특정한 부부 사건에 대한 인지도식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은(Pryor & Ostrom, 1981; Pryor, Simpsin, Mitchell, Ostrom & Lydon, 1982;

Strull & Brand, 1983)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자신 및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한 단위로 저장하여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며 '배우자 인지도식'과 같은 인지도식 평가의 방법이 합리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Snyder, Tanke 및 Berscheid(1977)는 인지도식이 상호작용하는 배우자들의 사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아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아내에게 접근한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과민해져서 또 짜증을 낼 거야'라고 지각한 남편은 과민해진 아내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의 방어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은 아내로 하여금 과민한 행동을 더 방출하도록 만들며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 자기 관점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아내의 과민 행동을 이해한다. 아내의 특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역으로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더욱 유발하도록 기여한다는 것을 남편이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요약하자면 배우자에 대한 인지도식이 어떤 부부 관련 사건에서 활성화 될 때,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지도식과 일치되게 배우자 행동을 기대하고 배우자의 행동을 해석하며 나아가 그 인지도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행동 방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인지도식을 지니고 있다면 그러한 인지도식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관련 사건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지각과정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배우자의 역기능적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각 배우자의 인지도식은 결혼 전의 생활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기초신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하여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신념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Dattilio & Padesky 1990). Epstein과 Baucom (2002)은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폭 넓은 관계 신념 유형으로서 가정(assumptions)과 기준(standards)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정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와 같이 특정한 친밀한 관계의 본성에 대한 신념을 칭한다. 예로서 '나의 배우자는 내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와 같은 믿음이 이에 해당한다. 기준은 관계가 존재하는 방식 또는 배우자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신념이다. '남편은 아내를 놓고 혼자 휴가를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단연코 옳지 않다!'와 같은 신념은 기준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신념은 일시적인 사고내용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해 꽤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안정된 사고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배우자 및 부부 역할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을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으로 칭하였다. 앞서 개관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은 자신과 배우자, 부부 상호 역할 및 관계에서의 사건에 대한 신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신념은 부부 상호작용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다.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성적 매력이 없는 여자다'하는 등의 평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해당한다. 배우자에 대한 신념은 상호작용의 대상인 상대 배우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이다. '남편이라면 항상 아내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혹은 '현모양처가 훌륭한 아내이다'하는 등의 배우자에 대한 일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신념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자신 및 배우자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남편은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결혼한 여자는 자신의 원가족 일에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상호 역할에 대한 규칙이나 기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바람직한 상호 역할을 통해 이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떠해야 한다고 믿는지도 이에 해당하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경제를 위해 부부 모두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거나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은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 상호 역할에 대한 신념 및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은 모두 부부관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부부 사건에 대한 신념은 하루의 일에 대해 부부가 토론하기 혹은 외식하기 등의 부부 생활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이 경직되어 있거나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일 때, 배우자의 행동이나 부부 사건에 대한 지각이 더욱 역기능적으로 일어나며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고 악화되기 쉽다.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의 형성은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기원할 수 있다.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나 현재의 부부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의 다른 관계에서의 경험이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Dattilio, 1993, 1994). 또한 영화나 책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표상되는 가족 및 부부관계의 모습도 신념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기대한다. 정확한 기대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여러 가지 반응 대안 중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왜곡되고 경직된 기대는 부부 사이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과 평가를 유발하며 나아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배우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기대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과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틀로 작용한다. 흔히 이 신념과 기대에 따라 배우자 행동 혹은 부부 사건의 한 측면에 선택적인 주의를 두게 되며(Beck, 1988; Baucom & Epstein, 1990) 이 신념과 기대가 역기능적일 때, 부부 사건 또한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배우자들의 신념 내용 전체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불만족을 유지, 악화시키는 부부관계에서의 포괄적인 신념 내용을 탐색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기능적 신념을 조사하는 것은 인지적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인지치료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부부문제를 설명하고 치료를 위한 접근을 하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한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 이루어져 왔으나(권정혜, 최규만, 2000; 이창숙, 유영주, 1998; 이현숙, 1999) 부부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더욱이 부부 사이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내용을 포괄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내 연구는 부재하며 신념의 차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Epstein과 Eidelson(1981)은 관계신념 질문지(Relational Beliefs Inventory)의 개발을 통해 부부 사이에 흔히 작용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했다. Epstein 등(1981)은 신념의 내용이 반드시 비합리적이지 아니더라도 그러한 신념을 지니는 것이 부부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는 관계에 대해 5가지로 대표되는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하였다. 각각은 ‘의견 불일치는 관계를 파괴시킨다(Disagreement is destructive)’,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Mindreading is expected)’, ‘배우자는 변할 수 없다(Partners cannot change)’, ‘성적 완벽주의(Sexual perfectionism)’,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The sexes are different)’로 대표되는 신념 영역이다. 이 5가지 신념 영역은 특히 임상집단에서 결혼 만족도와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지역사회 표본에서는 ‘의견 불일치는 관계를 파괴시킨다’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의 영역에서 부적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신념 질문지는 부부 생활의 전 영역에서 역기능적 관계신념 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구적인 부부관계 근거한 신념 내용이므로 이러한 역기능적 관계신념이 우리나라의 부부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부관계의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판 부부신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

국 부부의 부부관계 및 배우자에 대한 역기능적인 기대와 신념을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다. 한국판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용성은 첫째, 부부 당사자가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역기능적인지를 비교적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부들이 자신의 부부신념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갈등적인 부부들이 기대와 신념에서 서로 어떤 괴리를 보이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셋째, 한 배우자의 신념의 역기능 정도 및 두 배우자간의 신념의 불일치 정도가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부부신념 척도는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을 한국 부부에게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측정도구로 제공될 수 있다.

한국판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을 위해 절차에 따라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문항-총점 간 상관과 요인분석 등을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고 최종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방 법

예비문항 수집

부부신념 척도의 문항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상대 배우자 및 부부관계에서 상호 역할에 대한 가정과 기준 및 믿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

가와 함께 전체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로써, 부부 제반관계, 의사소통 및 행복증진 프로그램(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에서의 부부 평가는 결혼 만족도 척도를 제외하고 10개의 생활영역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에서 재인용).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는 결혼생활 영역으로서 11개의 세부 영역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2002). 부부 관찰 점검표(Spouse Observation Checklist; SOC)는 배우자들의 행동을 12개의 생활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Weiss, Hops & Patterson, 1973).

이처럼 결혼생활 영역을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을 때, 측정하고자 하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차별적인 각 하위영역별 점수들을 통해 부부문제를 보다 간편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 내용이 전체 부부생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거론되는 12가지의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표집하였다. 12가지 생활영역은 경제, 애정표현, 가사일,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성관계, 자녀 양육, 배우자 가족, 직업, 친구관계, 종교, 여가와 관련된 영역들이다.

예비문항 구성을 위한 1차 절차로서 주변의 기혼 남녀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부부관계에 대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그리고 부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상담센터에 부부문제로 방문한 내담자들의 진술도

수집하였다. 또한 상담 관련 책자를 통한 상담사례와 대중매체에 드러난 부부 갈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pstein 등(1981)의 관계신념 질문지(RBI)와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한국판 부부 만족도 검사에서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Inventory)를 제외한 하위척도들의 문항도 참고하였다. 수집된 모든 문항들을 내용상 해당되는 12개의 생활영역 중 한 곳에 포함시켰다.

문항들에는 '부부라면 상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와 같은 내용처럼 비합리적인 부부관계 신념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남자가 가사일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다'와 같은 문항처럼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신념 내용도 있고 '부부사이에 가사분담이 공평해야 행복한 부부다'와 같은 문항처럼 현대 사회에서 비교적 이상적인 지향점을 담고 있는 신념 내용도 있다.

부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념내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신념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경직되고 극단적으로 해당 신념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급적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항 내용들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2차 절차로서 앞서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문항들에 대한 평가를 임상심리 전문가 또는 상담심리 전문가 5명에게 의뢰하였다. 이들 전문가의 역할은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기능적 신념에 해당하거나 역기능적인 신념이 아니더라도 그 믿음의 경직성으로 인해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택하고 부적합한 표현은 수정하는 것이었다. 선택된 문항을 본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이 더 잘 전달되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생활영역에서 5문항씩 추출하여 12가지 생활영역에서 총 60 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생활영역에 해당되는 일부 문항들을 살펴보면 '경제' 영역에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에 전념해야 한다', '돈을 쓰더라도 현재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애정표현' 영역에 '부부라면 상대방의 애정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가사일' 영역에 '부부사이에 가사분담이 공평해야 행복한 부부라 할 수 있다',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가사일에 여자가 희생해야 한다', '정서적 의사소통' 영역에 '부부간에는 상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해야 한다', '부부사이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영역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 그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집안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성관계' 영역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부부간의 성관계 횟수도 많다',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녀 양육' 영역에 '남편은 직장 일을 주로 해야 하므로 자녀 양육은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배우자 가족' 영역에 '부부는 시가에 하는 것만큼 처가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 '결혼을 한 부부라면 부모님에게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된다', '직업' 영역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가장인 남편의 직업이 더욱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다', '친구관계' 영역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이외에 이성친구는 존재할 수 없다', '부부사이라도 아내가 나의 친구관계에 간섭할 자격은 없다', '종교' 영역에 '부부 사이에는 종교가 같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 너무 몰두하면 반드시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 '여가' 영역에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의 여가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가족끼리 여가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다' 등이다.

질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나 문항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하였으며 배우자를 치칭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에만 내용에 적절하게 '남편'과 '아내'의 호칭을 달리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와 '매우 동의 한다' 사이에서 7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일반 지역사회 표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담소나 치료 센터 및 가정 법원을 방문하는 임상 표본도 25 사례가 포함되었다. 문항-총점 상관 및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과 선정된 최종 문항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각기 다른 참여자를 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80명)는 중복되었다.

문항 선정 과정에 사용된 참여자는 기혼자 281명이었으나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문항 편파가 심하여 성의 없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제거하여 263명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남자가 106명, 여자가 157명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39.8(표준편차= 7.1)세였다. 평균 결혼기간은 11.9(표준편차= 7.7)년,

평균 자녀수는 1.6(표준편차= 0.8)명이었고 가계 총 월 소득은 221만원이었다.

최종 문항에 대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사용된 참여자는 기혼자 301명이었으나 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281명의 참여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남자가 115명, 여자가 16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5(표준편차= 6.8)세, 평균 결혼기간은 11.8(표준편차= 7.6)년, 평균 자녀수는 1.9(표준편차= 0.6)명이었다. 가계 총 월 소득은 229만원이었다.

측정도구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Inventory: GDS)

권정혜 등(1999)이 Snyder(1997)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이하 K-MSI)의 하위 척도이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이하 GDS)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 사용된다(권정혜 등, 2002). K-MSI 제작 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α)는 .92이었으며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문항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의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원 척도의 예-아니오 반응을 수정하여 5점 척도로 답변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6이었다.

절차

기혼자로 이루어진 참여자들에게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조사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부부신념 척도를 완성하게 하였다. 검사지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기혼자에게 질문지를 건네 그 자리에서 완성하여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응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질문지를 건네고 며칠 후에 넘겨받는 것으로 수집하였다. 부부가 모두 연구에 응해 질문지를 작성한 경우 서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상의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결 과

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60개 문항에 대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analysis)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별개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전체 요인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별에 따른 요인구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18개가 도출되었으나 Scree 검사에서 두개의 요인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한 후 같은 분석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에 속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였더니 35문항이 남았다.

이에 35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 부하량 .30 미만인 5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30문항이 구해졌다.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에 전념해야 한다(13번 문항)’, ‘남편이 가사일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15번 문항)’, ‘집안 문제를 결정할 때는 가장인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41번 문항)’,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므로 친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8번 문항)’ 등의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요인 1은 전통적인 구분에 의한 부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믿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의 명칭을 ‘전통적 부부신념’ 요인으로 정하였다. 요인 1의 설명변량은 19.3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부부간에는 상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해야 한다(16번 문항)’, ‘집안 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29번 문항)’, ‘부부는 시가에 하는 것만큼 처가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32번 문항)’,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26번 문항)’ 등의 12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내용들이 주로 평등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부의 애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요인의 명칭을 ‘현대적 부부신념’ 요인으로 명하였다. 요인 2의 설명변량은 14.20%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3.55%에 해당하였다.

두 요인 간 상관은 -.07로써 역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통적 부부신념 점수가 높

표 1. 부부신념 척도의 요인구조 계수 및 문항-총점 상관

	문항	요인 1	요인 2	문항-총점 상관
13.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에 전념해야 한다	.66	.17	.63**
7.	남편은 직장 일을 주로 해야 하므로 자녀 양육은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	.65	-.07	.59**
1.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63	.24	.57**
28.	가장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아내에게 내보이는 것은 부부관계에 좋지 않다	.61	-.14	.56**
17.	부부간의 문제는 들춰내어봐야 더 커지기만 하므로 덮고 사는 것이 좋다	.56	-.15	.56**
15.	남편이 가사일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다	.55	-.30	.61**
41.	집안 문제를 결정할 때는 가장인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55	.02	.64**
51.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가사일에 여자가 희생해야 한다	.52	-.09	.58**
58.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친구관계가 넓어야 하므로 가정이 뒷전이라도 배우자가 이해해야 한다	.48	-.10	.50**
40.	부부사이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6	.11	.47**
8.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므로 친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45	-.20	.52**
6.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남편이 항상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한다	.44	.16	.47**
50.	우리사회에서는 부부가 애정표현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43	-.25	.40**
9.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가장인 남편의 직업이 더욱 중요하다	.42	.09	.50**
14.	부부라면 상대방의 애정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42	.12	.42**
30.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40	-.20	.52**
54.	배우자가 성관계를 강하게 원한다면 싫더라도 응해주어야 한다	.38	.21	.44**
43.	여자는 자녀가 생기면 직장을 갖더라도 너무 일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34	.03	.40**
16.	부부간에는 상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해야 한다	.11	.68	.66**
4.	부부간에는 서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	.16	.66	.66**
29.	집안 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02	.64	.64**
5.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야 한다	.04	.64	.61**
3.	부부사이에 가사분담이 공평해야 행복한 부부라 할 수 있다	-.15	.50	.53**
2.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부부간의 애정표현은 많아야 한다	-.11	.49	.47**
26.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06	.48	.39**
19.	자녀양육은 부모 양자가 똑같이 책임을 지고 반반씩 역할을 해야 한다	-.32	.46	.54**
21.	어떤 경우에도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09	.43	.41**
32.	부부는 시가에 하는 것만큼 처가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	-.21	.41	.47**
60.	가족끼리 여가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 이다	-.04	.41	.50**
37.	사소한 지출도 배우자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한다	.11	.40	.51**

**p < .01

다고 해서 현대적 부부신념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추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12개의 주요 생활영역 별로 문항을 수집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각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어떻게 최종 30 문항에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제나 애정표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영역은 예비 5 문항 중에서 4문항씩이 최종문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들은 적게는 한 문항에서 많게는 세 문항 사이에서 포함되었으며 종교 영역은 한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부신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총점 상관을 살펴보고(표 1 참조)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와 반분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하위 척도인 전반적 불만족도와와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1에 속하는 각 문항과 1 요인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40 ~ .64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였고 내적 일관성 계수는 .83이었다. 2 요인에 속하는 각 문항과 2요인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39 ~ .66 사이에 해당하였고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반분 신뢰도는 요인 1이 .82, 요인 2가 .70에 해당하였다.

타당도 조사를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 척도 중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DS)와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 총점과 전반적 불만족 척도사이의 상관정도가 -.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념 척도의 두 요인 각각과 전반적 불만족 척도사이의 상관도 .02 및 -.04에 해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두 가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극단적인 부부신념 점수와 부부 불만족도와의 관련을 조사하였다. 척도의 문항에 극단적인 점수, 즉 1점과 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부부 불만족 척도 총점과 척도의 2점에서 6점 사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부부 불만족 척도의 총점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 중에서 부부가 모두 응답하여 부부 쌍 자료가 확보된 참여자 140명(70쌍)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부부신념의 불일치가 부부 불만족 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 문항 각각에 한 쌍의 부부가 표시한 해당 점수의 차이에 절대 값을 취하여 부부신념 불일치 점수로 하였다. 부부신념 척도에서 부부간 불일치 점수의 총점을 부부신념 불일치로,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 총점을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로 하여 상관을 조사하였으며 부부신념 척도의 각 요인들에서도 불일치 점수의 요인 총점을 구하여 상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부신념 불일치와 부부 불만족 사이의 상관

	부부신념 불일치	전통적 부부신념 불일치	현대적 부부신념 불일치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	.28**	.20*	.27**

* $p < .05$, ** $p < .01$

표에서와 같이 부부신념 불일치 총점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28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유의미하였다. 부부신념 척도의 각 요인의 불일치 점수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통적 부부신념’ 요인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20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현대적 부부신념’ 요인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27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부부간 신념의 불일치는 전반적 부부 불만족 수준과 정방향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 자신과 상대 배우자 각각의 역할 및 부부관계의 위상 등에 대한 믿음이 부부간에 불일치할수록 부부 불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부신념 척도의 요인 중 ‘현대적 부부신념’ 요인이 ‘전통적 부부신념’ 요인보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평등한 부부 역할, 부부 중심 및 부부의 애정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 부부신념에서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부부 불만족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신념 점수나 부부 신념 불일치 점수가 12개의 생활영역에서 각기 차별적으로 부부 불만족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도 분석의 한 목표였으나 최종 30 문항에 선발된 각 생활영역의 문항 수들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이러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징적인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신념 척도의

요인구조가 전통적인 측면과 현대적 측면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부부관계 내에서도 보다 평등한 지위와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력의 차이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이 여전히 부부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둘째 경직되고 절대적인 부부관계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에서의 불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이 지지되지 않은 점이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 관계에서의 신념과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Epstein 등(1981)의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관계신념 질문지 개발 연구에서 경직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와 상관의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역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 대치된다.

그러나 Baucom, Epstein, Rankin 및 Burnett (1996)의 부부 관계에 대한 기준과 부부 적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 사이에 더 적은 경계(boundary)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을 지닐수록, 힘-통제(power-control)의 과정에 대한 기준의 점수가 낮을수록, 관계에 더 높은 수준의 투자(investment)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지닐수록 부부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극단적인 기준을 지니는 것이 오히려 부부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Baucom 등(1996)은 이를 극단적인 기준을 지닌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관계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며 그 기준이 ‘관계 초점적’ 성질을

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관계에 많은 노력을 쏟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관계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극단적인 형태로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곧 부부 관계의 기능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관계에서 한 사람이 극단적인 형태로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보다는 극단적인 신념이 관계에서 표현되고 유지되는 어떤 과정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 부부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실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 신념 요인은 불만족도와 관련되는 부분 요인이며 이러한 사실이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낮은 상관관계를 낳게 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배우자 두 사람의 신념의 불일치 점수가 부부 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배우자들 사이의 기준이 매우 달라서 양립불가능한 것일 때 부부 사이의 불만족도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신념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고 지각될 때 불편감이 초래되고 일상 사건에 직면하여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Baucom 등(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불일치 점수와 불만족도와의 상관 정도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부부 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으로 보인다.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은 부부들이 관계에서 신념의 불일치를 상대 배우자에게 수용될만한 방식으로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부부 신념이 부부 사이의 기능이나 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신념의 내용보다는 부부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배우자간 신념의 불일치가 그 부부관계에서 표현되고 다루어지는 방식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부 문제가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역기능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측정도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부신념 척도가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적인 부부문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신념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을 설정하면서 주요한 부부 생활영역을 12개로 구분하여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최종 문항에 영역 별 문항이 고루 포함되지 않았고 종교 영역은 모두 탈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발된 부부신념 척도가 부부 사이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각 생활영역 별로 부부 갈등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비교도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는 부부 두 당사자의 부부 신념의 불일치가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부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신념의 불일치가 부부의 다양한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어떤 지각 과정을 유발하며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권정혜, 채규만 (2002). 결혼만족도 검사; 사용자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 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이현숙. (1999). 인지 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1), 5-29.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aucom, D. H, Epstein, N., Rankin, L. A., & Burnett, C. K. (1996). Assessing relationship standards: The Inventory of Specific Relationship Standar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72-88.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Guilford Press.
- Christensen, A., & Nies, D. C. (1980). The Spouse Observation Checklist; Empirical analysis and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69-79.
- Dattilio, F. M. (1993). Cognitive techniques with couples and families. *The Family Journal*, 1, 51-56.
- Dattilio, F. M. (1994). Families in crisis. In F. M. Dattilio & A. Freeman (Eds.), *Cognitive-behavioral strategies in crisis intervention* (pp. 278-301). New York: Guilford Press.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Epstein, N., &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uple: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pstein, N., & Eidelson, R, H, (1981). Unrealistic beliefs of clinical couples: Their relationship to expectations, goals and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13-22
- Floyd, F. J., & Markman, H. J. (1983). Caus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42-57.
- Jacobson, N. S., & Moore, D. (1981). Spouses as observers of the events in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269-277.
- O'Leary, K. D. (1987).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An Integration for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Jersey: Hillsdale.
- Pryor, J. B., & Ostrom, T. M.(1981).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social information: A converging-operations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28-641.
- Pryor, J. B., Simpson, D. D., Mitchell, M.m

- Ostrom, T. M., & Lydon, J. (1982). Structural selectivity in the retrieval of social information. *Social Cognition*, 1, 336-357.
- Segal, Z. V.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nyder, M., Tanke, E. D., & Berscheid, E. (1977). Social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56-666.
- Srull, T. K., & Brand, J. F. (1983). Memory for information about persons: The effect of encoding operations on subsequent retrieval.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219-230.
- Weiss, R. L., Hops, H., & Patterson, G. R. (1973). A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marital conflict, a technology for altering it, some data for evaluating it. In L. A. Hamerlynck, L. C. Handy, & E. J. Mash (Eds.), *Behavior change: Methodology, concepts and practice* (pp.309-342).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원고접수일 : 2009. 1. 14.
게재결정일 : 2009. 2. 25.

Development of Marital Beliefs Scale

Jin Sook Kim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ersity

Seok 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ital belief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to mari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assessing marital beliefs and to investigate its psychometric properties. A 30 item marital beliefs scale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of scores on 60 preliminary items (five items in each of 12 marital life areas). The factor analysis yielded two factors: traditional and modern marital beliefs. The marital beliefs scale was administered to another sample of subjects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cale was comparatively high. But its correlation with a general marital dissatisfaction scale (sub-scale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was not. However, when couple's data were investigated, a low,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 couple's marital dissatisfaction and the magnitude of their differences on the marital beliefs scale.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important factor in how marital beliefs lead to marital conflict is not the rigid or unreasonable nature of the beliefs held by husbands and wives, but rather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different beliefs.

Key words : marital problems, marital beliefs, correspondence of marital beliefs, marital dissatisfaction